

### 백련사 '재가자 무문관 수련' 현장

# 3~7일간 폐문 묵언·참선 정진



백련사 중무원이 무문관 뒷쪽에 난 음식물 출입구에 점심 공양을 넣고 있다.

한국불교 최고의 수행법으로 구상 수좌들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혹독한 '무문관 수련'. 문을 걸어 잠근 채 일체 외부와 단절하고 벽만을 향한 채 오로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입념으로 화두를 따라 해 가는 치열한 자기와의 한 판 승부인 무문관 수행을 재가자들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무문관 선반인 백련선원(조실 천운스님)을 낙성한 전남 강진 백련사주지 해일가 재가자를 대상으로 단기 무문관을 개설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부터 6월 2일까지 재가자 무문관이 개설된 백련선원에는 오직 바람소리만이 간혹 들리고 있을 정도로 고요했다. 백련선원에는 재가자들이 5명씩 5일 혹은 7일 동안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묵언 참선 정진을 하고 있다. 요란한 세상이들 잠시 접고 산새 소리만 들리는 산속

에서 철저히 자신의 본성을 찾아 가는 재가자들의 치열한 정진이 벽을 넘어 생생하게 느껴져 왔다.

현재 공식적인 무문관 선원은 갑사 대자암 삼매당, 백담사 무급선원, 제주 남국선원을 포함한 네 곳. 토굴에 개설된 개인 무문관까지 합치면 30여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백련사가 무문관을 개설하

## 40평 건물 5개 독방 '승선 닦기' 구도행

면서 수좌들의 등·하인거 결제철을 피해 재가자 무문관을 개설한 것은 말로만 들던 무문관 수행을 재가자들이 체험토록해 발심의 계기로 삼기 위한 것. 법사 출신의 박찬정진을 하고 있다. 요란한 세상이들 잠시 접고 산새 소리만 들리는 산속

점심이 제공되며, 저녁은 과일과 떡으로 대신한다. 백련사는 입방비를 받지 않는 대신, 참선수행 경험과 신선 등 수행요건을 갖춘 재가자들을 입방토록 해 수행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백련사 주지 해일스님은 "백련사 무문관에 5명의 스님이 방부를 들여 윤4월 보름(6월6일)부터 3개월간의 결제에 들어가기 전, 재가자를 대상으로 단기 무문관 수련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재가자들도 무문관 수행을 체험해 더욱 발심해 수행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611432-0837

강진=김재경 기자

## 김태복장군 관련 국방부 성의없는 회신

### 상고철회·관련자 문책 조계종 요구에 무응답

국방부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김태복 장군 사건과 관련 국방부장관에서 보낸 공문에 대해 성의 없는 회신을 보내와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조계종 총무원에 보낸 민원 회신서에서 "국방부는 본 사건과 관련해 불교계를 기만하거나 특정 종교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전제한 뒤 "김태복 장군 사건은 개인적 비리행위에 대해 군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이고, 그 결과는 대법원의 판결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계종 종교연대대책위는 "4월 19일 총무원장 스님이 보낸 공문에는 국방부의 상고철회, 관련자 책임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방부가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불교계에 장난을 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 "이번 사건을 개인비리로 인식하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사 시주금을 뇌물로 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문제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국방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포교사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7개 불교단체들은 17일 장여불교재가연대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김태복장군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를 5월중에 구성키로 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앞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두식 기자

## 조계사 화성 망실토지 되찾았다

### 고법, 정부항소 기각

조계사가 경기도 화성의 옛 태고사 소유였던 망실토지를 최근 되찾았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을 안령리 25-1번지에 소재한 341㎡의 토지에 대해 정부가 조계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던 항소가 지난 15일 기각됨으로써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앞서 조계사는 지난해 8월 정부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 땅은 1936년부터 1944년 사이 각 지방 사찰에서 태고사에 증여됐던 것으로, 6.25 전쟁과 행정구역 변경, 종단 내부 변화 속에서 60여 년 동안 관리되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로 남아

한명우 기자

있다가 1999년 재정경제부 임의소유로 등록됐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망실토지에 대한 조사 및 소유권 확인작업을 벌여온 조계사는 일제시대 총독부관보 기록을 찾아내 이 토지가 조계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밝혀냈다.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100명 장기기증 신청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100여명이 일제히 장기기증을 신청해 화제다.

지난 9일부터 3일간 생명나눔실천회와 대한연합동아리인 'life share'가 동국대에서 벌인 '장기기증 캠페인'에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병모고통받는 이웃을 돕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단체로 장기기증을 신청했다. 특히 97학번 40명 전원은 골수기증까지 서약했다.

이번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단체기증은 'life share'의 45명 회원중 10명이 이 학과 학생인데다, 회장도 경찰행정학과 학생(장현석·4년)이 맡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장현석 군은 "아직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미진하지만 우리와 같은 젊은 세대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면 인식이 바뀔 날도 그리 멀지 않겠다"며 "많은 대학생들이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 불교문화학과 등 신설

진각종립 위덕대학교(총장 손세석)는 10월 2002학년도 정원조정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번 정원조정안에 따르면 2001학년도 대비 140명을 증원하고 불교문화학, 창업경영학, 아동학, 건축설계학, 산업디자인학 등 5개 학과를 신설했다. 또 대학원에는 외교통상학과와 영어영문학과를 신설했다.

이경숙 기자



조계사가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들어갔다.

## 조계종 서울노인복지센터 개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고 조계사가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18일 오전 복지관 3층 중앙공원에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사회복지 양산스님,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을 비롯해 고건 서울시장과 이용부 서울시의회 의장, 정홍진 종로구청장 등 사부대중 800여명이 참석했다.

탑골공원 인근 종로구 경운동(구) 통계청 자리에 세워진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총면적 20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본관과 별관으로 건립됐으며 진료실, 공동작업실, 자원봉사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온돌휴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서예·바둑·댄스·영화관람 등 각종 교양오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하루 2천여명의 어르신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새로운 노인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연구조사 및 가족 프로그램 설치, 노인 자치기지원단 구성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 영락사 시민선방 개원

대구 영락사주지 구공은 16일 법주사·율주 혜정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 '시민 참선 도량' 개원식 및 삼존불 점안식을 병행했다.

영락사는 개원과 함께 오전 4-6시, 8-10시, 오후 2-4시, 7-9시 등 하루 4차례에 걸쳐 시민들에게 참선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매주 일요일 한차례씩 기초교리 강좌도 가질 계획이다. (053)784-9290 김재경 기자

## 불국사 말사 تن

### 3인조 강도 붙잡혀

경북 경산경찰서는 14일 심야에 총기를 들고 사찰에 침입, 탕화와 사주합 등을 털어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박모(26.무직,경북 경주시 건천읍)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경 경북 경주시 서면 천촌리 소재 불국사의 말사인 주사암 요사채에 흉기를 들고 침입, 현금 170여만원이 들어있던 시주함과 벽에 걸린 탕화 5점 등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경 기자

## 스님이 국고보조금 23억 횡령

### 범어사 대책위 구성 "관련자들 엄중 문책"

부산 범어사 재무국장 석호스님이 문화재 보수비 등 국고 보조금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국민들은 물론 불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96년부터 범어사 문화재 개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 70억 여원 가운데 23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자취를 감추었던 범어사 재무 석호스님이 17일 자진출두,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석호스님은 문화재 시설 보수, 신축공사에서 목재구입비나 공사금 등을 허위로 작성, 국고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석호스님의 허위서류에 맞춰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준 부산 금정구청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범어사는 15일, 16일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열어 사건 관련 운영위원회 및 중무협의회 연석회의를 갖고

대책위원회(위원장 중원)를 구성했다. 중원스님, 정만스님, 원정 스님 등 10명의 스님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불자들 및 관계기관에게 사죄드린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범어사 내 소장 스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승가모임은 15일 사태에 대한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범어사 자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청년암 대사님을 중심으로 15명의 젊은 스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청년승가모임은 서명운동을 계속하는 한편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주지 성오스님을 비롯, 재무, 총무, 규정, 교무, 포교, 기획, 사서 등 소임자들이 일괄 사퇴할 것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한 산문총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 앙코르 유적군서 석불 103기 발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군에서 13세기 석불 103기가 발굴됐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발굴작업에 참가한 일본 조지(上智)대 앙코르 유적조사팀은 "유적 참배를 위해 만들어 놓은 도로 옆에서 대부분 머리가 잘려 나간 상태로 이들 불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프놈펜 국립박물관 측은 감정을 통해 "이들 불상은 크메르 미술의 걸작품으로 모두 국보급 수준"이라고 밝혔다.

불상들은 13세기 초 자야바르만 7세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전사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건립한 '바이온' 유적과 같은 양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높이가 30cm밖에 안 되는 작은 것에서부터 1.2m 높이에 이르는 것도 있다.

권형진 기자

#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h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 455-7555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치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藥也 (연년·불로 선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나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재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배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재만다라 액자의 신비
-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재만다라와 팔재 불탑다라니의 신비
- 11 황동판 팔재만다라와 팔재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12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재만다라와 팔재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이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예)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 334-9490, 334-9491  
야간 : (031) 706-3060